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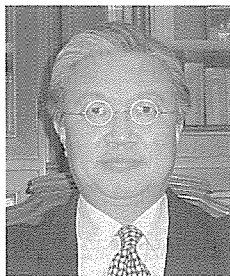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문집단 육성 위한 매개체 역할

대한 생화학·분자생물학회는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의 기초와 응용에 관한 학술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의과학의 발전과 인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 아래 1947년 대한의학협회 산하 학회로 등록한 후 1948년 대한 생화학회라는 독립적인 학회단체로의 창립을 거쳐 1995년 대한 생화학·분자생물학회로 학회의 명칭을 변경한

이래 현재 약 1천6백여명의 기초의학과 임상 및 생명과학 분야의 회원들로 구성된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학회이다. 지난 50여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저희 학회의 면모를 단지 한, 두장의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2002년도 올해의 학회 행사 및 업무 내용을 토대로 본 학회가 다른 유수한 학회들과의 차별화된 점들을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요약하고자 한다.

작년 추계 학술대회 논문 2백34편 발표

우리 학회는 연 2회의 정기학술대회(춘계, 추계)와 하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춘계 학술대회는 기초의학협회의 소속 학회들과 공동으로, 추계 학술대회는 매년 10월 말에 단독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들 학술대회에서는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국내, 외 저명 과학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탁월한 연구결과들을 접할 수 있는 심포지엄과 colloquium 및 일반 연자들의 포스터 발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추계 학술대회의 경우 신호 전달, 유전자 발현, 약물의 작용 등 최신 의학 분야에 총 2백34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의



具 滋 賢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장/건국대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학연구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다. 하계 컨퍼런스는 국내, 외 저명인사들의 연구결과 보다는 본학회 소속 회원들 중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의 주요 연구결과들을 보다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서 2박3일 동안 참가인원들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상호간의 연구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보다 가

속적인 학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우리학회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학술정보의 전파와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매년 3차례 정도의 연수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연수강좌마다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하여 3백50명 이상이 등록하는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등록자의 1/3이 임상교원들이라는 점은 본 학회가 기초의학과 임상 분야의 가교역할을 하여 서로 연계된 학문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결과 이외의 최신 학술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모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희 학회는 현재 추계 학술대회 개최시 최신 연구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각 전문업체들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이 행사에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많은 인원들이 이론 강의와 최첨단 기기들의 실제 시연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실험의 원리와 응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오고 있으며 주관 정부기관들의 정책설명회(참고로 지난 학술대회에서는 BT 정책설명회, 복지부 유전체사업단의 정책설명회 개최)들을 개최함으로써 국가 과학분야의 홍보단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오고 있다.

“과학은 우수한 학문집단이 두꺼운 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육성해주고
이러한 학문집단이 정보를 교환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02년 하계 학술대회(2002년 7월 11일~13일, 안면도 롯데오션캐슬)

1964년부터 학술지 발행

전문적인 학술지의 발행은 학회설립 목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학회에서도 1964년 국한문 혼용으로 「대한생화학잡지(The Korean Journal of Biochemistry)」를 창간한 후 1975년 국제화시대를 겨냥하여 본 잡지를 영문전용으로 개편하였으며 1996년 학회지 명칭을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EMM)」으로 개칭하여 전문적인 의학연구 학술지로서의 발전을 모색해 왔다. 논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ISI)사에 의하면 2000년도에 학술논문이 인용되는 정도에 따라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Science Citation Index(SCI) 및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SCIE)에 총 5천6백84종의 학술잡지가 등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록에 등록되기 위하여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제반조건(1년에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출간, 심사의 엄격성, 공정성 및 규격 등) 들을 갖추어야만 한다. 현재 국

내의 자연과학계에서는 약 1백여종이 넘는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지만 이들 중 총 23개의 학술지만이 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일부의 학술지만이 국제적인 규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영문 학술지인 EMM은 논문의 인용도로 평가하는 JCR 충격지수(Impact factor)가 각각 1.4(2000년), 1.6(2001년)을 기록하여 국내에서 발간되는 영문 학술지 중에서는 처음으로 1.0을 돌파하였으며 SCIE에서 SCI급 학술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여 중위권의 국제학술지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우리 학회에서는 이러한 전문학술지의 발행 이외에도 1973년부터 의과대학생의 생화학실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습서인 「생화학실습」을 발행하여 현재까지 계속 새로운 실험방법들을 소개해오고 있으며 1994년부터 「생화학·분자생물학 소식」이라는 학회 소식지를 연 4회 발행하여 매 호마다 최신의 의학 분야에 대한 소개, 국내 우수논문의 소개 및 국내 의학생화학자들의 연구 동향을 홍보함으로써 국내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과 정보 교환을 위한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소화해내고 있다. 또한 「생화학·분자생물학소식」지에 수록된 주요 연구분야의 논문들을 하나로 묶어 1998년부터 「Trends in Medical Research」라는 제목으로 최신 연구결과들을 수록한 지침서를 발행하여 많은 과학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최신 의학연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우리 학회에서는 올해 국가시책 중의 하나인 과학의 대중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어렵게만 느껴오던 의과학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이

접근하여 많은 의과학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과학 대중화 홈페이지(<http://www.medicaldigest.or.kr/>)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질환인 암,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과학적인 상식들을 수록하고 있는 질환별 집중탐구 분야와 최신 의과학 뉴스 및 현재 대체의학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천연물과 의과학 분야를 소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의과학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문의해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양방향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보다 일반 대중들과 가까이 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과학은 몇몇 탁월한 과학자들이 선도하여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학문집단이 두꺼운 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육성해주고 이러한 학문집단이 정보를 교환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요점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폭 넓고 경쟁력있는 학문집단을 육성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질적으로 더 성숙된 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학술잡지인 EMM을 현 상태에서 만족하기 보다는 세계 최고의 학술잡지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학술지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의과학의 대중화를 통하여 보다 일반 대중에게 가까이 설 수 있는 학회로 거듭나길 약속드리며 정부기관의 아낌없는 지원과 일반 국민들의 격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학회 홈페이지(<http://www.ksmbmb.or.kr/>) ㉞

독자의 詩

격 랑(激浪)

宋 俸 鉉(시인, 국제펜클럽회원, 한국기술사회사무총장)

급히 달린다
기쁜 숨 몰아 쉬면서도
섬세하고 다양하게,
새로운 혁명 이끄는 정보통신 눈 부셔
맨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

흘날리는 눈보라 속에도
기라성이 뜨고
더러는 떠돌다 실족하여
유성(流星)으로 낙하한다

아, 과학기술

현주소를 찾는 의미가 없다
위치를 인식하는 순간
새로운 폭풍우가 몰아쳐
뒤엎는다

과학기술자가 일으키는
오늘의 격랑
그 물결 이루르지 못하면
골리앗 기업도
휩쓸려 폐허가 된다.

세계가 뒤엎겨
한바탕 싸움판이다

번쩍이며 교합하는 자유경쟁에
나라, 기업, 개인
침잠한 숨고르기로
미래를 세우고
기술 앞 세워
다잡는 전략이 있어야한다.

